

세계연합신문
모바일 보기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농협

**2025
APEC
INCHEON**
 국제 최대 경제포럼
세계 최대 비즈니스 허브
지속 가능한 스마트 마리에도시
인천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제1303호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김동연 “김포 서울 편입” 황당하기 짹이없어…‘국토 갈라치기’



'김포, 서울 편입' 관련 입장 밝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국민의힘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황당하기 짹이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 지사는 이날 동행 기자단과 만나 “경제와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 선거 전략으

로 만약에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정치적 계산에 불과”
“지하철 5호선 노선 확장과 조속 추진이 김포시민에게 가장 시급”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정책인 데 반해 여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모든 절차와 방법은 무시된 채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적 계산만 남았다”고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 김포시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하철 5호선 노선 확장과 예비 타당성 조사 문제를 통한 조속한 추진”이라며 “여야가 함께 또 경기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해 의원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의 김병수 김포시

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게 됐고 종 선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6일 김 시장을 만나 서울시 편입 방안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굉장히 뜬금없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인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민주당 경기도당은 “신중한 검토와 준비, 공감대가 기반이 돼야 하는 문제다. 총선 대비용 지역 갈라치기다”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한데수 국무총리를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김포는 경기북도 범

위에 포함하지 않고 편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경기북도 김포’가 아닌 ‘서울 김포’가 낫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김포 서울 편입론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실현되려면 서울시·경기도·김포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친 뒤에는 국회에서 서울 편입과 관련한 법률도 제정해야 한다.

김포처럼 서울시와 연접한 광명·과천·하남·구리 등의 경기지역 시들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들 도시도 원하면 서울 편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선호 기자

정부 “전세사기, 기한없이 엄정 단속…최대한의 책임 지울 것”

尹 “끝까지 추적” 이틀 만에
법무부·국토부·경찰청 합동 브리핑

수원·대전 등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라자 정부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를 밟본색원하고 충실히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법정부 차원에서 벌여온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이 연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무기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 범죄가 국적 현안”이라면서 “범죄 첨보 수집을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지 이를 만이기도 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의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하다”며 “사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이 범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고, 그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컨설팅 업자 등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최지수 씨가 쓴 책 ‘전세지옥’을 언급하며 “더는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는 그 말씀을 정책을 펴는 기본으로 삼겠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 범죄가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수의 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피해를 흘려 모든 서민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까지 임대인 20명을 입건했으며, 고소인 316명에 대한 피해 조사, 주요 피의자 출국금지·압수수색, 피의자 3명 1차 조사 등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도 지난달부터 전세사기 수사 전담팀을 꾸려 운영 중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절박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걸리는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법무부 “MBC라디오 진행 신장식에 법적 조치…악의적 허위보도”

신씨 “한동훈, 홍일병 유족 비탄으로 인기몰이” 발언에 반박

법무부는 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의 비탄을 인기몰이 수단으로 써먹는다”고 주장한 MBC 라디오 진행자 신장식(52)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씨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 선동”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24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홍 일병의 유족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폐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 장관이 법안(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진행 중인 신장식(52) 씨

회의·국무회의 심의를 미쳤다”며 “방송 이전인 10월19일 및 24일에 ‘신속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10월25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 중”이라면서 “신씨 발언이 있던 24일은 해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법무부가 개인의 인기몰이를 위해 유족을 이용한다는 듯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히 악의적인 허위 선동”이라며 “공영방송인 MBC 진행자가 공공성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유로 정상적 법률 개정 절차를 왜곡·선동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차민정 기자

함께하는 100년농협

**농촌 여행은
웃음이 익어가는 여행**

아이도 어른도
함께 웃으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모두가 그리워하던 여행
마음이 원하는 우리 농촌에서
힐링 여행을 보내세요

尹 “재정 늘리면 고물가로 서민 죽어…서민이 정치과잉 희생자”

“서민들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 재배치해야 하는데 반던 사람들 죽기살기 저항”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며 정부의 긴축 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 카페에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밀언에서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반대 측에서) 아우성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를 가진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며 “결국은 돈이 드는 데 정부 재정 지출이 꽉꽉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80년 대 초 전두환 대통령 시절 김재경 경제수석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때 정계에서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 재정을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끼칠까봐”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대 측에선)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주장에 대한 자신의 답변이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날 국회 시정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고 했다.

이어 “새로 받는 사람은 정부가 좀 고맙기는 하지만, (반발하는) 이 사람들과 싸울 정도는 안 된다”며 “받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대 측에선)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주장에 대한 자신의 답변이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날 국회 시정연

설을 통해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 어려운 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오늘날과 같은 정치 과잉 시대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며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것은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우리 정부의 책임이란 확고한 인식을 갖고 오늘 잘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겠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점을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마포는 2021년 3월 검찰총장에서 물려난 윤 대통령이 정치 입문을 선언한 계기가 된 곳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재작년 6월 29일 제 정치 선언문 첫 페이지에 마포 자영업자 이야기가 나온다”며 학창 시절 자주 다니던 되지갈빗집의 일화였다고 밝혔다.

당시 선언문에는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것이냐. 국가는 왜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인가”라고 묻던 해당 자영업자의 발언이 소개됐다.

또 같은 해 9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한 마포구 한 맥줏집 사장의 빈소와 가게를 갔던 점을 언급하며 “여기를 다시 와 보니까 저로 하여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일단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절규하면 그것을 바로 듣고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원기 기자



화재 진압 훈련하는 소방대원

소방대원 출동·훈련에 전념하도록 행정업무 부담 줄인다

소방 현장 대원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출동과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폐지하기로 했다.

성격이 유사한 33개 대회와 행사는 17개로 통합했다.

일선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운영 실태 점검 횟수는 연 1회에서 격년 1회로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출전하는 소방관들의 잊은 부상 등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던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운영 시스템을 큰 폭으로 수정해 내년 대회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앞으로도 현장대원들이 훈련과 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오찬영 기자

권성동 “공매도, 제도개선 전까지 금지해야…금융당국 늦장행정”

“금감원은 제도개선·한시금지 필요성 인정했는데 금융위는 소극적 태도”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일 “불법 공매도를 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대해 “많은 분이 말씀을 주셨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울러 불법 공매도는 주가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며 “회복 불가능한 재산상 불이익이 있어 불법을 막을 수 있다”라고 했다.

권 의원은 “현재 금융감독원 역시 공매도에 관한 제도적 개선과 한시적 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정부 관료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불리는 권의원은 불법 공매도 처벌, 기관·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담보 비율 합리적 조정, 과도한 주가 하락 시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세기 브레이크 적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금융당국은 대통령 취임 1년 6개월 동안 공매도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제 와서 개인 투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늦장 행정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또 “금융당국 수장들은 국민의 뜻을 담아 관료의 반대를 돌파해주길 바란다”며 “나 역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돋겠다”고 강조했다.

/ 남규혁 기자

소 런피스킨병 70건으로 늘어…전남 신안서도 발생



69건이 확인됐고, 그 이후 전남 신안군의 한 우동장에서 추가 사례가 나왔다.

농장 70곳에서 살처분됐거나 살처분되는 소는 5천10마리다.

이와 별개로 중수본은 의심 신고 4건에 대

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소 런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1일 모두 70건으로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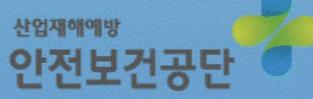
런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확진 사례를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10% 이하다. / 박소희 기자

모두가 하나되어 산업재해 철벽방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안전
원팀



신원식, 각군에 1호 지휘서신…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국방차관 주관 추진협의체도 구성 …ROTC 활동비 인상 등 추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일 “초급간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선진 국방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장관은 이날 취임 후 각군에 처음 내린 ‘지휘서신 제1호’를 통해 “국군의 근간이자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인재인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이 보수와 생활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초급간부는 임관 이후 5년 차 이하의 장교와 부사관을 말한다. 이들은 군 간부의 40%(7만8천여명)에 달하는 국군의 ‘허리’지만 병사들에 견줘 상대적으로 복무 기간이 긴 데다 경제적 처우가 열악해 갈 수록 이탈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신장관은 이에 대응해 국방부가 ▲단기복무장려금 및 수당 인상 ▲시간외근무 수당 상한 시간 확대 ▲특수지근무수당과 당직근무비 인상 ▲간부숙소 여건 개선



신원식 국방부 장관

▲군인가족 무상진료 확대 ▲격오지 난방비 지원 ▲도심지 군다운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군의 본질은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며 “본질을 훼손하는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보고서 작성과 회의 중심의 부대 운용

에서 탈피해 “거점, 작전지역, 훈련장 등 현장에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협의체’도 구성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기의식을 갖고 초급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가도록 활용한 모든 권한을 작동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먼저 학군단(ROTC) 장교에게 지급되는 역량강화 활동비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입영훈련기간 등을 제외하고 학기 중에만, 즉 1년 중 8개월만 매달 8만원씩 주어진다.

군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액수를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12개월 전체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전원이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3사관학교는 2년제 대학을 졸업

하거나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학력을 구비한 자원 가운데 생도를 선발하며, 졸업 후 6년간 의무복무를 한다.

육군사관학교 졸업생이 통상 10년 의무복무를 하는 것에 견줘 복무기간이 짧아 직업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는 3사 졸업생의 장기복무율이 60~70% 수준인데 이를 10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3사와 육사의 차이점이 없어지는 만큼 통폐합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현재 검토될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장기적으로는 군 인력구조를 병사와 초급간부가 두터운 ‘피라미드형’에서 중간간부가 많은 ‘팡아리형’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사·학군장교의 장기복무자 선발률을 지원자 대비 현행 58%에서 80%까지 높여 직업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 임종성 기자



‘900억대 코인 사기’ 이희진 형제

법정서 혐의 부인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당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병대해 아직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증거 등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유보했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생 희문(35)씨 측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달 4일 구속기소됐다. 이씨 형제는 2021년 2~4월 코인 판매 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270억원 상당)를 코인 발행채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 이던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동생과 직원 김모씨 등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며 코인의 발행·유통·상장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석방 후인 2020년 3월부터는 직접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3개를 추가로 발행·유통하고 7개 스캠 코인을 위탁 발행·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20여명이 분업화된 형태로 코인

을 제조·유통하고 투자자들을 선도해 매수를 유인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법원은 최근 이 사건을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2명의 사기 사건에 병합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공판을 열고 혐의·증거 등에 대한 이들의 구체적 의견을 듣기로 했다. / 광도현 기자

통합위, 신혼부부·대학생 위한 ‘청년 주거 대책’ 만든다

‘더 나은 청년 주거 특위’ 출범 고시원·대학기숙사 개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신혼부부, 근로자, 대학생 등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국민통합위는 1일 서울 마포구 청년 창업 지원 공간에서 ‘더 나은 청년 주거 특

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김영덕 은행권청년 창업재단 대표이사를 위원장에 위촉했다.

특위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 확보 방안과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 방안을 들여보기로 했다.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도 검토해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환경 개선방안과 아직 경제력이 부족한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확충 등의 정책 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덕 특위 위원장은 “단순한 정부 지원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청년이 원하는 주거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제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통합위는 최근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 ‘노년의 역할 살리기 특위’,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위’ 등 특위를 잇달아 구성하고 관련 정책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 백경호 기자

간호대도 정원 늘린다…2025학년도 1천명 늘어날 듯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천명 부족…“최소 5년간 확대 필요”



‘의대 정원 확대 대응’ 긴급회의 인사말하는 이필수 의협 회장

정부가 간호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확대 폭을 간호사 단체 외에 환자·소비자단체, 학계, 교육계와 함께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에서 간호대 정원은 1천명 안팎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1일 서울시 티타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교육부 관계자, 의료인력 전문가, 교육계, 병원 경영자,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12명이 참여한다.

12월 초까지 격주로 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대학별 정원 배정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정심에 보고한다. 이후 교육부에 통보돼 입시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한시적으로 간호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6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2배로 늘려 2008년 1만1천686명이던 정원이 2023학년도 2만3천183명으로 늘었다. 특히 2019학년도부터는 입학 정원을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늘리고 있다.

입학정원이 갑질이 되면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간호사 수도 인구 1천명당 2.16명(2008년)에서 4.94명(2022년)으로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020년 기준) 8.0명보다는 한참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일부 지방 종소병원은 간호사 수급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1천명당 임상 간호사 수는 서울은 6.55명이지만, 충북은 3.35명으로 절반 수준이다.

작년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 수는 48만1천명으로, 이 중 52.6%(25만4천명)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의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나 장기요양시설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2020년 기준)도 73%로 낮다.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간호사는 4만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간호사의 현장 이탈을 막기 위해 근무환경 개선도 모색하고 있는데, 간호사의 업무 강도가 지금의 80%로 원화될 때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2025학년도 입시의 간호대 정원은 그동안 즐그 폭을 넘어서 1천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로 따져 보면 최근 늘려왔던 것보다 더 큰 폭의 정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장기적인 정원 확대 계획도 논의할 텐데, 최소 5년은 정원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부가 간호대 정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 논의도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정원 확대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협회의 시각차가 크다.

의협은 의협과 정부 사이 양자 협의 틀인 의료현안협의체가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간호협은 시민단체 등도 참여하는 보정심을 통해 간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입장이다.

의협 등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간호대의 경우 정부와 간호계 모두 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 안정수 기자

치매가 걱정된다면, 지금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세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1

2

3

치매조기검진
만 60세 이상 누구나,
단계별 치매검진 제공
검진결과에 따라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관련 서비스 연계

치매환자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지원
치매환자 실종 예방 등
치매환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치매가족지원
치매가족(보호자) 상담
치매가족 교실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24

치매관련 문의 전화 | 365일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與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금주 발의…TF 구성도 검토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주중에 특별법 법안 발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당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특별법이 일반법 상위에 놓이는 만큼 다른 관련 법안들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표 발의자로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이나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한 태스 크포스(TF) 구성도 검토 중이다.



김포골드라인 차량기지 찾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당 관계자는 “김포 편입 논의를 위한 기구를 띠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메가서울로 범위를 넓힌다면 위원회 형식이 될 텐데 김포 논의에 국한한다면 TF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 주민들의 서울 편입 요구는 경기도가 최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국민의힘은 ‘경기북부 김포’가 아닌 ‘서울 김포’가 낫다는 김포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김포 서울 편입’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김포뿐 아니라 구리,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등 다른 인접 도시들도 서울 편입 가능성이 당 안팎에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들 인접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염두에 두고 수도권 여론 조성을 살펴보고 있다.

/ 송유영 기자



답변하는 행안부 장관

‘이재명표 사업’ 지역화폐 예산 공방

“대폭 증액” “역기능”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매우 실망, 국정기조 전환 없어

“병사 복지예산 삭감,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 아닌지”



최고서원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윤석

기조 전환은 없었고, 변명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전환은 없었다”고 비판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이 옳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제 시정연설에 대해선 기대가 상당히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며 “민생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없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합리적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사 월급을 올린다고 하셨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예산을 1천 857억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

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이것을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또 “의사 정원 확대 이야기는 어디로 갔느냐”라며 “정부가 국정을 하는 데 있어 무슨 국정 과제를 던졌다가 반응을 봄이며 슬그머니 철회하고, 또 이것 하나 던졌다가 반응이 없으면 없애고 이런 식으로 국정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삼모사보다 더 나쁜 것이 빈 음식 접시를 내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을 상대로 똑같은 말로 장난친 것도 문제지만 빙가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 경제를 포기해도 최대한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신지호 기자

화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불황에 고통받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정부는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역에 돈이 들어와야 한다”며 “지역사랑상품권 효과가 탁월하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왜 이걸 안 하려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의뢰한 분석보고서에도 (상품권) 공급이 1% 증가하면 매출액은 8.3%, 종사자 수는 2.1% 증가한다고 나와 있다”며 “예산을 적어도 전년도 수준인 7천억원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담을 말하는데 실제 부담은 크지 않다. 그에 따른 부

가가치세를 환수하지 않느냐”며 “왜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화하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만든 제도라 그런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설득해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천준호 의원도 “윤 대통령은 어제 서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과감하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국비 편성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도 향후 예결위의 증액 요구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증액 요구에 이 장관은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 촉진을 위해 국가 재정지출을 늘렸던 것인데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돼 어느 단계에 서는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경정 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일부 낭비성 예산 편성을 지적하는 데 집중했다.

/ 황순길 기자

인요한 ‘통합행보’ 가속…유승민 이어 이준석·홍준표도 만날까

인요한 “유승민과 통했다”·“홍준표 말 맞아”·“이준석, 저를 가르쳐달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미지수다. 인 위원장에 이어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 전 대표는 여전히 강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0 대 100이면 그에 합당하게 이야기해야지, ‘100만 원 줄 테니까 받으세요’ 이러는 순간 싸우자는 것”이라며 “왜 남한테 강요하는가. 이게 2차 가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반성’ 없는 사면은 안 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을 징계 해제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최고위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인 위원장이 저렇게 노력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쪽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통합 차원에서 당사자 의사와 별개로 징계 해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표적인 비윤(비윤석열)계 유승민 전 의원과 만나면서 혁신위의 최우선 과제인 당내 통합에 부쩍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히 유 전 의원과의 회동을 계기로 혁신위 ‘1호 안건’인 징계 해제에 거세게 반

인 위원장이 긍정적인 만남이었다고 평가한 만큼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워온 유 전 의원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유 전 의원을 끌어안게 되면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설을 잠재우

이준석 반발 여전…최고위 내에서도 내일 징계 해제 논의 앞두고 의견 ‘분분’

발 중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만나 ‘비윤계 끌어안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 위원장은 1일 CBS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날 유 전 의원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나는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유 전 의원이 한마디로 ‘당과 국가가 걱정이 된다’고 했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하고 내통하는 것 전혀 없다”며 “우리는 굉장히 통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또 “정말 젠트맨”,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존경이 간다”, “참 자세가 아름답다”, “순수한 사람” 등으로 유 전 의원을 한껏 치켜세웠다.

는 효과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에 대해서도 바짝 몸을 낮췄다.

이 전 대표를 향해서는 “만나서 듣고 싶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주장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조언받고 싶다. 저를 가르쳐달라”고 호소했다.

홍 시장이 혁신위의 ‘대사면’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인다. 전체를 다 용서한다 해서 사면이라는 말을 썼지만, 우리 홍 대표가 말씀하신 게 맞다”고 수용했다.

하지만, 인 위원장의 이러한 광폭 통합 행보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당의 한 관계자 역시 “내부에서 이 전 대표 징계 해제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는 분이 있어서 설득해야 한다”며 “통합 취지로 징계를 해제하는데 오히려 반발만 더 세지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대로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을 징계 해제 명단에서 제외할 경우 혁신위 1호 안건을 사실상 거부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 우려도 함께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당을 쇄신하겠다고 출범시킨 혁신위의 활동에 지도부가 스스로 제동을 걸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김희경 기자

세상을 바꾸는 금융
희망부자 그 두번째 이야기

“이 작은 꿀벌이 제 전부고 행복 그 자체입니다”
선안방통증병원 박혁진 대표 (25세)

이 작은 친구와 함께 하면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에게 꿀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됐어요
날씨가 좋지 않아도 꽃송이를 오기며 꿀을 모으는 꿀벌들을 보면서 성실히의 가치도 배웠고요
더 열심히 이 소중한 친구들을 지켜줘야겠다고 매일 다짐합니다
처음에 도전이었던 이 꿀벌이 이젠 제 전부이자 행복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은 희망들을 KB가 응원합니다

To BEE continued

Korea Better
KB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희망부자 그 두번째 이야기

“이 작은 꿀벌이 제 전부고 행복 그 자체입니다”
선안방통증병원 박혁진 대표 (25세)

이 작은 친구와 함께 하면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에게 꿀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됐어요
날씨가 좋지 않아도 꽃송이를 오기며 꿀을 모으는 꿀벌들을 보면서 성실히의 가치도 배웠고요
더 열심히 이 소중한 친구들을 지켜줘야겠다고 매일 다짐합니다
처음에 도전이었던 이 꿀벌이 이젠 제 전부이자 행복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은 희망들을 KB가 응원합니다

To BEE continued

Korea Better
KB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희망부자 그 두번째 이야기

“이 작은 꿀벌이 제 전부고 행복 그 자체입니다”
선안방통증병원 박혁진 대표 (25세)

이 작은 친구와 함께 하면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에게 꿀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됐어요
날씨가 좋지 않아도 꽃송이를 오기며 꿀을 모으는 꿀벌들을 보면서 성실히의 가치도 배웠고요
더 열심히 이 소중한 친구들을 지켜줘야겠다고 매일 다짐합니다
처음에 도전이었던 이 꿀벌이 이젠 제 전부이자 행복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은 희망들을 KB가 응원합니다

To BEE continued

Korea Better
KB금융그룹

‘하마스 포위작전’ 이스라엘 공세 격화…지하터널 첫 타격

시설 300곳 공격, 테러범 50명 사살”…난민촌 공습 피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 외곽에 지상군을 투입해 하마스 포위 전략을 펴는 동시에 지하터널을 포함한 하마스의 거점을 차례로 장악하고 있다.

이스라엘군(IDF)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병과 탱크부대가 가지지구 북부에 있는 하마스 군사조직 자발리아 대대의 근거지를 장악하고 테러범 50여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IDF는 지하터널과 로켓 발사대, 무기고 등을 발견하고 자발리아 여단 지휘관인 이브라힘 비아리를 사살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하마스는 “지휘관 중 공습이 이뤄진 시간대에 자발리아에 있었던 이는 없다”며 “근거없는 거짓말”이라고 부인했다.

공군을 동원한 작전 과정에서 자발리아 난민촌 주택가가 공습을 받았다. 이 지역 인도네시아 병원 관계자들은 50명 이상이 숨지고 150여명이 부상했다고 말했다. 하마스 내무부는 “난민촌 사망자가 100명으로 늘었다”며 “자발리아에서만 400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IDF는 이보다 앞서 밤새 교전을 벌여 하마스 시설 300여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스라엘은 가자시티는 물론 가자지구 전체를 통한하는 살라 알딘 도로를 일시적으로 장악하는 등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가자지구 북부 지중해안에도 IDF 병력이 배치됐다.

이스라엘 측은 지난 7일 분리장벽을 넘어 키부초(집단농장)에 침투하도록 시시



이스라엘 공습으로 다쳐 치료 기다리는 팔 소녀

한 가지 북부 베이트 라하야 대대 사령관은 아부 아지나를 공습으로 제거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지상전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31일 공군 정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대규모 병력을 가자지구 깊숙이 전개했다”며 “가자지구의 무장세력을 상대로 한 지상전의 결과와 성과는 매우 높다”고 자평했다.

또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가자지구 영토 깊숙한 곳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스라엘은 가자시티는 물론 가자지구 전체를 통한하는 살라 알딘 도로를 일시적으로 장악하는 등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가자지구 북부 지중해안에도 IDF 병력이 배치됐다.

IDF는 이 해안을 포함해 병력을 주둔시

키고 대규모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술적 접경지를 구축하는 한편 지하터널 출입구를 수색·제거하기 위한 공습을 계속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스라엘 대테러국제연구소의 미리 에이신은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가자시티와 주변 난민 캠프에서 시가전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세력이 가세해 중동 다른 지역으로 확전할 우려도 여전하다.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인 쿠드스군의 에스마일 카아니 사령관이 개전 이후 레바논 베이루트에 머물며 중동 내 반이스라엘·반미 세력의 작전을 조율하고 있다고 중동 전문매체 암와즈미디어가 보도했다.

예멘 반군 후티는 성명을 내고 “3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겨냥해 드론과 탄도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며 “이스라엘의 도

발이 멈출 때까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자지구 안에 고립된 민간인들 희생을 막고 의료와 생필품 등을 시급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생명이 이미 희생됐다”며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했다.

크리스티안 린드마이어 세계보건기구(WHO)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가자지구에서는 대량 이주에 따른 과밀화, 식수 부족 및 각종 인프라 손상으로 공중보건 재앙이 임박한 상태”라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는 1일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해 중상을 입은 가자지구 주민 81명을 이송받아 치료하기로 했다.

이집트는 라파에서 약 15km 떨어진 시나이반도 북부의 세이크주웨이드 마을에 팔레스타인 부상자 수용을 위한 1천300m² 규모의 야전병원을 세우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미국은 확전을 막고 자국민을 포함한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암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통화하며 이스라엘이 자국민을 보호하고 테러리즘과 맞서 싸우는 데 국제인도주의 법을 존중하고 민간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 조성원 기자



지난달 28일 중국 상하이에서 헬러원 분장을 한 사람들의 모습

곰돌이푸·방역요원…상하이 헬러원 분장서 中사회 비판 표출

중국 상하이에서 ‘헬러원 분장’을 통해 중국 사회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표출됐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밤 화이하이루(淮海路) 등 상하이 거리에는 다양한 헬러원 분장 젊은이들이 쏟아져나왔고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경찰이 혼잡 지역 출입을 통제했고 일부 지하철역은 폐쇄됐다.

젊은이들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며 헬러원을 반겼고, 이들이 분장한 모습은 중국 소셜미디어에 퍼져나갔다. 그중에는 중국 당국의 겹겹 대상인 곰돌이 푸 분장도 있었다.

앞서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동화 속 주인공 곰돌이 푸와 푸의 호랑이 친구 티거와 닮았다는 일부 누리꾼들이 풍자 놀이를 시작한 이후 푸는 반중의 상징적 캐릭터로 떠올랐다.

중국 상하이 헬러원 축제에서 방역요원 ‘다바이’로 분장한 이가 마녀로 분장한

이의 코를 면봉으로 찌르는 시늉을 하고 있다. 헬러원 분장에는 ‘다바이’도 등장했다. 흰색 방호복을 입은 방역 요원을 뜻하는 다바이는 중국의 가혹한 ‘제로 코로나’ 3년을 상징한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다바이로 분장한 이들이 면봉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을 검사하려는 모습이 올라왔다. 이들의 모습은 중국 당국의 권리 남용과 통제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VOA는 짚었다. 그런가 하면 장례식에 놓이는 추모 화환으로 분장한 이와 그의 옆에서 “당신이 너무 보고 싶다”는 문구를 든 이도 있었다.

이밖에 하락세를 이어가는 상하이 종합 지수 차트를 목에 두르고 나온 사람, 중국 작가 루쉰으로 분장해 젊은이들에게 목소리를 내라고 독려하는 사람도 있었고 임시 스트레스로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고등학생이나 머리가 형틀어진 노년층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배트맨으로 분장한 이도 있었다.

/ 권정석 기자

中지원 美부대 ‘플라잉 타이거’ 거론한 中…“협력은 최고 선택”

이달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 속 관영매체 양국관계 안정 강조…‘추가 제재’ 반대 의도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중국 당국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매체들이 잇달아 양국 관계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정상회담 개최에 적극적인 미국과 달리 중국은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1일 시평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 지원을 위해 파견된 미군 부대 ‘플라잉 타이거’(Flying Tiger·중국명 비호대) 대표단의 방중 소식을 전하며 “양국 인민의 생명과 피로 맷어진 깊은 우정을 되새기고 중미 민간 우호를 촉진

하는 분명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플라잉 타이거 정신은 미중 관계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전쟁의 시대에는 함께 싸웠고 평화의 시대에는 영원한 동반자가 돼야 한다’는 미국 노령의 말을 언급하며 “중국과 미국은 두 개의 강대국으로서 세계의 평화, 안정, 발전에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고 반드시 상호존중, 평화공존, 상생협력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은 양국 민간 교류를 중시하고 장려한다”며 “미국 정치권도 민의에 부응해 양국 인민의 복지와 세계 평화 발전의 대승적 관점에서 중국과 함께 양국 우호의 새로운 장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전날 사설 격인 종성(鐘聲)에서 “중미 관계는 하락을 멈추고 조속히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궤도로 복귀해야 한다”고 썼다.

인민일보는 “역사와 현실은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이익이고 싸우면 손해라는 것을 거듭 증명했다”며 “협력은 항상 중미 양국에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울리 “중국과 미국은 세계 양대 경제 강대국으로, 경제 규모 비중이 세계의 3분의 1이 넘고 인구는 세계의 4분의 1에 육박하며 양자 무역액은 세계의 5분의 1을 차지한다”며 “두 나라 각자의 성공은 서로에게 위협이 아니라 기회”라고 강조했다.

/ 최형민 기자

‘한복 조롱’ 日의원 “차별 안했다”

적반하장…日전문가는 비판

한복 차림 여성 등을 조롱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최근 법무 당국으로부터 ‘인권 침해’ 사례로 지적받은 일본 국회의원이 “차별을 하지 않아”며 ‘적반하장식 반론’을 펼쳤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은 지난달 27일 SNS에 올린 동영상에서 “아이누와 재일교포 여러분에 대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역차별과 사이비, 그에 수반되는 차별과 차별을 이용해 일본을 꺾아내리는 사람들이 있다”며 “차별이 없어지면 곧 한 사람들과 싸워왔다.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훈들림 없이 정직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스기타 의원은 2016년 SNS를 통해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다”

라는 문제가 된 차별적 발언을 했다. 이에 재일교포, 훗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이 각각 오사카와 삿포로 법무국에 인권 구제를 신청했고, 두 법무국은 모두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스기타 의원은 이 같은 결정에 “일부(인권 침해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삭제하고 사죄했다”고 했지만, 이번에 올린 동영상에서는 ‘사죄’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다.

그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고,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등 우익 성향 인물로 알려졌다.

/ 노건우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R,
자원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품다

“충북 광천석면광산 산림복구사업 준공지”

• KOMIR 탄소중립

- 탄소흡입 산림조성
- 광산 탄소저감시설 지원

• KOMIR 동반성장

- 중소광산 기술고용지원 및 성과공유

• KOMIR Safety

- 광산안전컨설팅
- 안전시설지원

• KOMIR 뉴딜

- 산림자원 등 활용
- 도시재생 사업

K-콘텐츠,
단디 준비했다 아이가

[영화의 전당에서, 부산 연극영화극단 김현준 이태민 최명경 님]

2030 부산세계박람회
**BUSAN
IS READY!**

부산에서 시작해 전세계가 함께하는
인류의 더 나은 미래가치를 위하여

미래,
같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합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삼중고” 한국경제 돌파구는 종합 개혁…리더 역할 중요

“대외 환경 변화를 기회의 장으로 활용”…한은·상의 세미나 기조연설

한국경제의 복합적인 당면 문제를 돌파하려면 인적자원, 기술, 제도·정책의 종합적인 개혁과 함께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화 고려대 교수는 1일 오후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은과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세미나에서 “지리경제학적 분열과 인구 감소가 경제 여건의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가 성장 잠재력 하락, 소득과 부의 불평등 지속, 고물 가와 금융 불안정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외적으로는 무역과 외국인 직접 투자가 우호적인 국가로 집중되고, 그 결과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경제와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시장 다변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산업구조 고도화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등 무역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제 안보



박수치는 이창용 한은총재와 최태원 회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 생각이다.

총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속화 속에서 성장을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는 여성·고령층 인력 활용과 교육·노동 개혁, 투자 확대, 규제·제도 개혁, 기술 혁신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인구 증가율이 낮을수록 1인당 자본과 생산량의 증가율을 높일 수 있으며, 노동 절약형 기술 발전과 1인당 소득

및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는 ‘역발상’을 덧붙였다.

이 교수는 “개인은 미래에 필요한 지식, 기술과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를 갖추고, 기업은 핵심 기술, 인력 자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대외 환경 변화와 산업 재편을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어진 세션에서 “글로벌 분절

화 흐름이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글로벌 및 우리 경제에 주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분절화 정도에 따라 수출이 최대 10% 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확충하는 등 글로벌 교역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별도 세션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는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배터리, 철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생산성 향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특히 “국내에 글로벌 첨단 산업 생산의 허브 기지를 구축하고, 중국과 수출 구조가 비슷한 다른 나라들과 새로운 협력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송원기 기자



친환경 절연가스가 적용된 초고압 송전급 차단기

전기연,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 친환경 절연가스 개발

한국전기연구원(KERI)은 전력기기 분야에서 지구온난화 주범인 ‘SF6’(육불화황)를 대체하는 친환경 절연가스를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전력기기는 전기도 잘 통해야 하지만 돌발사고 대비 등 안전상 이유에서 전기를 차단하는 절연(Insulation) 기능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SF6 가스는 절연 성능이 우수하고, 전력계통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고장전류를 차단하는 성능이 뛰어나 전력기기 분야에서 50년 넘게 사용돼 왔다. 그러나 SF6는 지구온난화 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가 이산화탄소의 2만 3천500배에 이른다. 또 대기에 한 번 누출되면 3천200년을 존재하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전기연은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 대응 등을 목적으로 SF6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가스 개발에 나섰다.

전기연은 현재 산업군에서 사용되는 가스 중 지구온난화 지수가 낮은 물질을 가려낸 다음 전기·화학적 분석, 절연·폭발·발화 제어 성능시험 등을 거쳐 최종 후보물질을 선정했다. 이후 전력기기에 적용하기 위한 최적의 비율을 도출해 친환경 절연가스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이 가스 명칭을 ‘K6’로 정했다. K6는 지구온난화 지수가 1 미만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심각한 독성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가스를 전력기기에 적용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끓는점도 낮아(-26°C) 대부분의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기체의 특성을 갖는다. 전기연은 K6 가스를 초고압(145kW) 송전급 차단기에 적용할 수 있는 설계기술을 확보한 데 이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규격에 따른 차단 성능시험까지 통과했다.

전기연은 이번 시험 통과를 계기로 향후 K6 가스를 배전에서 송전까지 이르는 다양한 전력기기(차단기·변압기·개폐기 등)에 적용하고,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이전을 통해 상용화도 준비할 계획이다.

/ 서장기 기자

KG모빌리티, ‘디자인코리아 2023’서 토레스 EVX 전시

KG모빌리티[003620]는 국내 최대 디자인 종합박람회인 ‘디자인코리아 2023’에 참가해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토레스 EVX’를 전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

엑스에서 열리는 디자인코리아 2023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한다.

지난 9월 출시된 토레스 EVX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고객 인도(출고)가 이뤄진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정통성을 기조



로 한 디자인의 지속가능성과 KG모빌리티의 전동화 비전을 토레스 EVX를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전시 부스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꽈도영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지급 530억 중 304억 환수…“나머지도 환수”

재난지원금 오지급·부정수급도 환수 절차 진행 중…선지급 재난지원금은 면제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에게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 530억 원 중 304억 원 정도를 환수했고 나머지도 별도로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과세정보 누락 등으로 소상공인업체 5만7천583개에 손실보상금이 530억2천만 원이 잘못 지급됐고 이 중 4만9천982개 업체를 대상으로 304억5천만 원이 환수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3월부터 다음 분기 보상금으로 상계하는 방식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환수해 왔고 상계방식으로 환수하지 못한 부분은 별도 조치를 통해 환수할 계획이다.

손실보상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산정해 보상한 것으로 317만9천개 업체에 8조5천억 원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또 지난해 7월부터 오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진행 중이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한 현금성 지원금으로 2천 123만개 업체에 52조8천억 원이 지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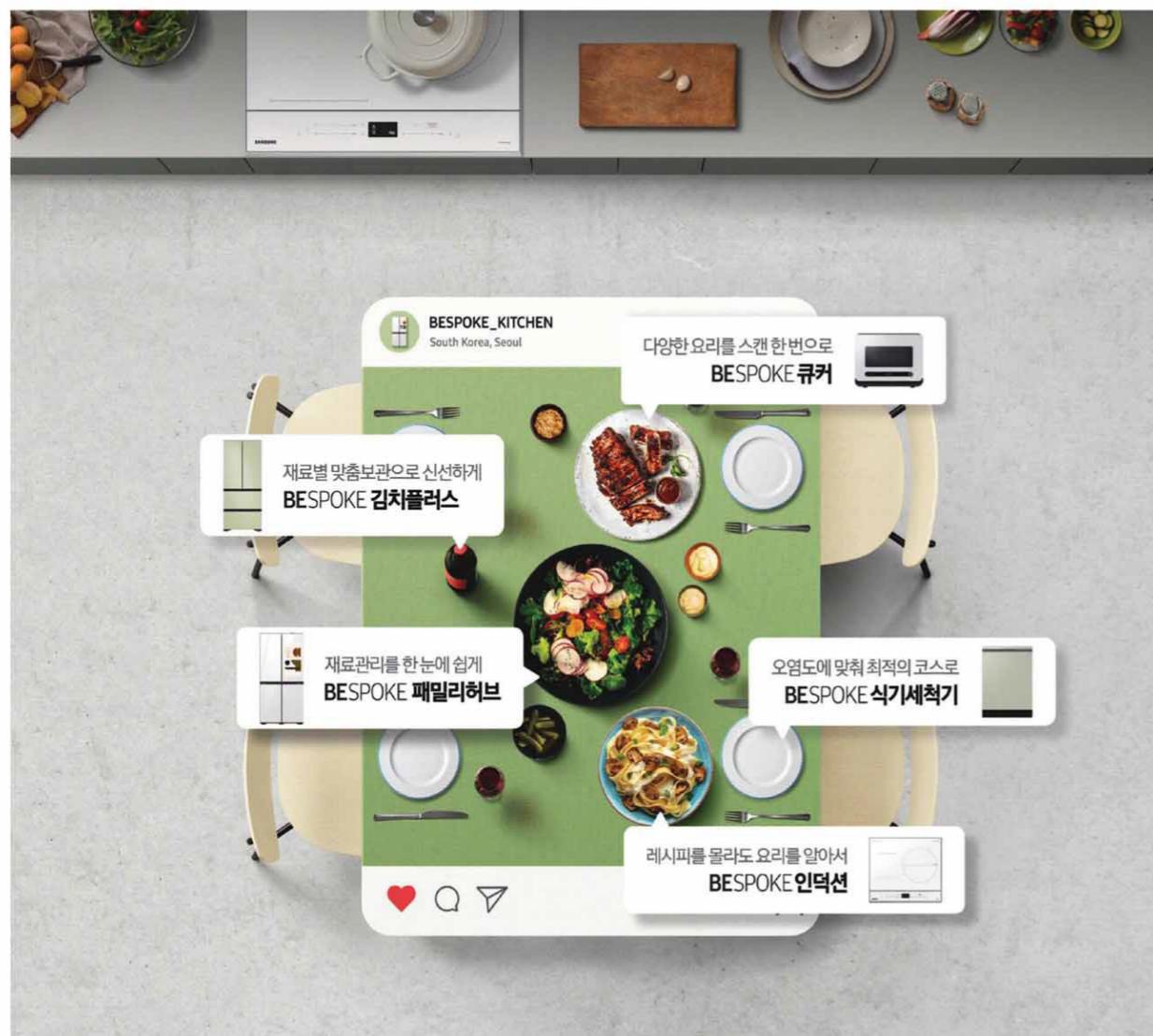
그 과정에서 3천799개 업체에 114억2천만 원이 오지급됐고 지금까지 2천369개 업체에서 71억9천만 원이 환수됐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등이 중복 수급을 비롯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올해 7월부터 사전 통지 등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수 대상은 4천392개 업체, 142억5천만 원이고 지금껏 277개 업체에서 6억9천만 원이 환수됐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당정이 매출이 증가할 경우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환수 의무 면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대상은 56만6천개 업체로 금액은 8천214억 원이다.

/ 서정미 기자



집밥은 실전.

보여지는 한끼를 위해 재료관리, 불조절, 마무리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으니까
비스포크가 시작부터 끝까지 알아서.

BESPOKE 키친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부산 어묵공장 찾은 조승환 장관 “수출 역량 강화에 선제 지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이 필요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1일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 사하구에서 고래사어묵을 운영하는 늘푸른바다 본사를 찾아 부산시,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부산 어묵을 수출하는 기업인의 고충을 들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늘푸른바다 관계자들은 부산 어묵을 세계화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형광 고래사어묵 대표는 “현재 50여개국에 어묵을 수출하고 있지만, 한인이 많은 캐나다와 미국 중심”이라며 “어묵을 비롯한 수산물 가공식품을 세계화하려면, 어묵을 어떻게 현지화 할지 관련 연구를 철저히 해야하는데, 이때 정부 지원이 절실히”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해외에서 현지 조사 등을 할 때 정부가 실무적으로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거리가 먼 외국까지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며 “식품산업 개발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이에 수출 기업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관련 기관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민생 경제와 수산 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수출기업 간 소통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은 기업이 필요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간담회 이후 베스코에서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차관을 만나 양국 간 해양·수산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문성용 기자



부산어묵 제조 공정 시찰

금융으로 세상을 ●롭게



고객과 상생하는 금융 신한금융그룹이 있습니다

고객이 어려울 때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 모두가 힘을 모아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상생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맞벌이 가정을 위한 신한의 상생금융
신한 꿈도담터 보러가기

의대 정원 확대 둘러싼 충북도-건국대 신경전

도 “도민 신뢰 회복해야”…대학 “기존 투자계획 성실히 이행”



면담 나누는 충북도와 건국대 관계자들

충북도와 건국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1일 도에 따르면 김영환 지사는 전날 유자는 건국대 이사장과 학교 관계자를 만나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면담을 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자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국대는 충북(충주)에 의과대학을 두고도 지역 기여에는 미흡했다”며 “이 대학 의대 정원을 늘려도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인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국대 이사장을 만나 향후 계획을 들어보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할 것”이라며 “건국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충북대 의대 정원 확대가 우선이

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전날 유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건국대 충주병원은 도내 북부지역 필수 의료와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상급병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도민 신뢰

를 회복해야 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국대를 압박했다.

하지만 건국대 측은 구체적인 지역 의료 확충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1시간 30여분에 걸친 면담을 마친 것으로 전해

졌다.

건국대 충주병원의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앞서 충주 지역사회와 약속한 3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후문이다.

도 관계자는 “교육부도 ‘무너만 지역 정원’이라고 비판받는 일부 의대는 지역사회 기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증원 배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건국대의 향후 행보를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991년 설립된 건국대 충주병원은 300병상 규모지만 수용 환자 수가 절반에 그치고 의사 정원도 40%밖에 채우지 못해 일반 종합병원급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 최희성 기자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개소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자립준비청년에 매월 6만원 교통비 전국 최초 지원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매월 6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본인이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넘어 시설을 떠나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1천700명으로, 서울시에서만 매년 260여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최근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금은 한 달에 20일, 매일 2회 간·지선 시내버스(요금 1천500원)를 이용한다고 가정해 산출했다.

이번 대중교통비 지원은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에 따른 것으로 시비 총 39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

준비청년이다.

보호종료 후 5년간 매월 6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통비 지급은 이 달부터 시작된다. 또 서울시 버스 요금 인상 시기(올해 8월)에 맞춰 연말까지 신청

을 완료한 대상자는 8월분부터 지원금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보호종료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보호종료일 기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지원된다.

김순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자립준비청년의 꿈과 첫출발에 동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두터운 자립지원 강화계획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노건우 기자

노원구, ‘찾아가는 매니저’ 등 소상공인 서비스 체계 구축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 맞춤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2021년 서울시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노원구 소상공인 사업체(상시근로자 5인 미만)는 3만3천772개다. 신용보증재단은 2022년 노원구 내 매출액이 전년보다 7.3% 늘었으나 임대료 상승 폭이 더 높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을 것으로 봤다고 구는 전했다.

이에 구는 지난 5월 지역 내 소상공인 1천200개 업체를 방문해 현황, 정책 인지도,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벌였고 이를 토대로 마련한 소상공인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선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사업을 운영한다.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지원정책에 대한 흥보 강화를 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매니저를 채용해 직접 접포를 방문하고 지원정책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

이다.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전문가와 연계하는 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준다.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 한다.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기존 문자에 더해 카카오톡 일림톡으로도 구청 및 유관기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에 대비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에도 나선다. 노란우산이란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같은 역할로, 소상공인의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제도다. 노란우산에 가입한

노원구 소상공인은 7천여 명에 이른다.

구는 노란우산 가입을 유인하고, 평생 맞춤형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희망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별 월 공제부금 납입 때 구가 월 1만 원씩 최대 12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희망장려금과 중복 수령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 전략, 노무·회계·법률 등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인 ‘리더스 아카데미’를 반기별로 열고, 청년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경영 아카데미’도 연 2회 운영 중이다.

/ 심현수 기자

대구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최고속도 시속 20km로 조정



대구시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최고 속도를 기준 시속 25km에서 20km로 하향 조정했다.

또 지역 내 모든 중·고교 인근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배치나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

기 위한 것이다.

시는 PM 대여사업자와 민관협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사업자가 스스로 시행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시철도 역사 입구, 버스 승강장, 중·고교 정문 등 6천곳이 PM 반납 불가 구역으로 설정돼 PM을 주차할 수 없게 된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을 제재한 홍보 카드를 지역 내 모든 PM에 부착한다.

김대영 시 교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 안전과 이동 편의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신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황석영 기자

정읍 동학농민혁명공원·불멸, 바람길,

지역문화매력 100 선정



승리한 황토현전 적지에 건립된 동학농민혁명기념 공원에는 박물관, 추모관, 기념물 등이 들어섰다.

공원에 설치된 ‘불멸, 바람길’은 고부에서 봉기를 시작한 동학농민혁명군의 행렬 이미지를 부조, 투조, 환조의 기법으로 제작한 군상 조각이다.

동학의 인본주의의 사상이 작품의 근간을 이루도록 인물 배치를 사람인(人) 형상으로 한 게 특징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이 처음 시작된 혁명의 도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분포한 곳”이라고 말했다.

‘로컬 100’은 문체부가 지역문화 매력을 발굴·육성·확산하기 위해 명소, 콘텐츠, 명인 등 100가지를 선정해 2년간 국내·외에 홍보하는 사업이다.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과 싸워

/ 이은성 기자

경남 농민들 “농산물 무분별 수입으로 생존권 위협…중단해야”

경남지역 농민들이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과 가격 안정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1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투쟁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돼지고기 등 나열하기 벅찰 정도로 많은 품목을 대거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할당(TRQ)으로 들어왔다”며 “올해도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양파 등 수입 대상 품목을 무분별하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결정은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키고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라며 “농가 생산 기반을 훼손해 파산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신재일 기자



가까운 롯데하이마트 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

하이메이드를 만나보세요

“롯데하이마트가 만든 합리적인 가격과 믿을 수 있는 상품”

환절기, 건강 관리 가전



HIMADE Made by 롯데하이마트

건조한 가을, 홈 케어 가전



* 평가기준은 당시 시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WAVE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ww.thewave.net



우리가 그리는 2030부산엑스포는 어떤 모습일까요?

2030부산엑스포를 통해
기후변화, 양극화와 같은
인류가 마주한 문제를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SK도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춘천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현지서 자매결연 20주년 행사

아디스아바바시장 “20년 우정 이어가길…춘천시에 감사”

육동한 춘천시장과 청소년 공공외교단 학생 등으로 구성된 강원 춘천시 방문단은 31일 오전(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시청을 찾아 20년간 이어진 교류를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아디스아바바시는 이날 시청에서 춘천시와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열었다. 춘천시 방문단이 아디스아바바시청 앞에 도착하자 100여명의 현지인이 태극기를 흔들며 방문단을 환영했으며 교류 행사 내내 현지 공연단이 율동과 음악으로 축하했다.

춘천시와 에티오피아는 내년이 자매결연 20주년이 되지만, 에티오피아는 올해가 20주년이 된다.

현재 전 세계 나라가 1월 1일로 새해를 시작하는 그레고리력이 사용하는 것과 달리 에티오피아력은 사용해 9월 11일이 새해가 되기 때문이다.

아다네체 이비비 아디스아바바 시장



31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시청에서 열린 강원 춘천시와의 교류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육동한 춘천시장이 아다네체 이비비 아디스아바바시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

은 “대한민국 춘천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가까워지고 있다”며 “우리는 지난 역사를 한시도 잊지 않고 우호를 유지하고자 지원해주는 춘천시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과거 에티오피아

이날 기념식은 양 도시 시장의 인사말과 에티오피아 외교부 차관의 축사 후 기념품 교환, 20주년 기념 케이크 절단,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행사 후 아디스아바바시 시내에 있는 아브라하트 도서관을 방문한 육 시장은 그동안 춘천시가 기증한 도서 코너를 찾은 데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900여 권을 전달했다.

이곳에는 내년에 한국문화와 관련된 책과 시설이 있는 ‘춘천 코리아센터’를 개설한다.

육 시장은 아디스아바바시 외곽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회관도 찾아 기념탑에 현화하고, 참전용사들과 간담회를 했다.

그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며 “참전용사의 희생을 잊지 않고 더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최영수 기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나선 박완수 경남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우주항공법 통과시켜라”

1인 시위 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

박완수 경남지사가 경남에 들어서는 우주항공법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1일 연달아 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박 지사는 먼저 이날 낮 국회 정문 앞에 서 1시간 정도 1인 시위를 했다.

그는 ‘우주항공법 모든 쟁점은 해소됨, 국회는 11월 정기국회 내 우주항공법을 통과시켜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직접 들었다.

박 지사는 이어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박 지사는 “2024년이 대한민국 우주 역사의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우주항공법 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법 특별법에 대한 모든 이견이 해소됐다. 이제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일만 남았다”며 신속한 법안 심사와 의결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우주항공법 설립을 골자로 하는 우주항공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9월 말까지 우주항공법 특별법 통과를 결론 내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는 우주항공법 위상과 법안 경과규정 측면(6개월→3개월) 등을 합의했다.

그러나 우주항공법에 연구개발 기능을 부여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난달 말 90일 활동을 마감했다.

국민의힘과 우주항공법 예산지 경남도는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오는 9일 우주항공법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희망한다.

그러나 법안이 9일 본회의까지 가려면 안건조정위 경과보고서 제출, 과방위 법안소위, 과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면서 거쳐야 하는 등 일정이 빠듯하다.

/ 홍순길 기자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예타 탈락

전북도 “재도전”

전북도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조고속 이동 수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은 ‘기술개발 시급성과 경제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예타 시행 사업에서 제외됐다. 전북도는 과거 해양수산부의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과기부의 ‘뇌과학 선도융합 기술개발’ 등 예타 탈락 이후 재기획을 거쳐 통과한 사업들

이 있는 만큼, 미흡한 점을 보완해 예타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해 예타 통과 전력을 가다듬겠다”며 “사업 당위성과 시급성 등 기획 완성도를 높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추진하는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은 차량을 ‘아진공’(0.001 기압 수준) 상태 튜브에서 부상시켜 초고속으로 주행하는 핵심기술을 확보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술 개발과 성능검증 등 1단계 사업비는 3천377억원이며, 시험 선로 구축과 상용화 연구 등 2단계 사업에는 7천89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 장명철 기자

그때처럼 지금도 교보생명의 꿈은 계속됩니다

밥은 굶어도 아이들은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세계 최초의 교육보험을 만들었고

“교육이 민족의 미래”라는 신념이

오늘날의 교보문고를 있게 했든

교보생명이 걸어온 지난 65년의 역사처럼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꿈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KYOBOT 교보생명

제주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격차 줄인다…도·교육청 지원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2023. 11. 1.(수) 15:00 | 제주도청 탐라홀



2023년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무상급식비 격차 완화를 위해 공동 지원에 나선다.

도와 교육청은 1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2023년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제주 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협의서’를 채택했다.

양 기관은 초등 돌봄 협력과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등 10개 안건을 논의해 최종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양 기관은 유보 통합 추진과 관련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상급식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24년 소요 비용을 공동 분담한다.

올해 기준 무상급식비 단가는 유치원 3천790원, 어린이집 2천880원으로 910 원 차이다. 이 중 이미 어린이집에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친환경급식비와 NON-GMO(비유전자변형) 식품비 부분을 제외한 격차(650원)를 해소하는 데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신규로 특수학교 무상급식비를 공동 지원하고 양질의 학교 급식을 위해 내년 학교 무상급식비는 5%, 친환경급식비는 8.7% 인상한다. 내년 3월부터 운영되는 지역 연계형 초

등 주말 돌봄센터를 비롯해 제주형 거점 통합 돌봄센터 등 제주형 돌봄모델 정착과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재일제주인과 도민 기부, 해녀 모금 학교 설립 등 제주인 학교 설립 운동에 대한 사료 수집과 정립 및 도

민 자금심 고취를 위한 기획전시 등의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특화교육과 제주 미래 신산업(첨정에너지, UAM, 우주산업, 자율주행 등) 분야 학교 교육을 위해 내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협력하고, 자유학기제와 방과 후 프로그램 개설 등 학교 교육과정에 도입을 추진한다.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목표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을 연 20회에서 50회로 확대하는 등 교육과정에 탈플라스틱 정책을 반영한다.

제주에 교육 필수 시간은 내년부터 학년별 5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한다.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 주관 행사와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 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 차현우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한·일·중 대표항만도시 경제공동체 제안

인천시는 일본 출장 중인 유정복 시장이 31일 요코하마시를 방문해 한·일·중 대표 항만도시 간 경제공동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의 우호도시인 요코하마에서 야마나카 다케하루 시장을 만나 인천과 요코하마, 중국 텐진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정부와 민간 중심의 도시외교는 정부보다 협력 정

을 넘어 환경 문제와 기후위기 공동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방정부 간 교류가 한·일·중 3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감의 뜻을 표시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6월 중국 텐진시를 방문해 당서기·시장 등 최고위 지도자들과 만나 한·일·중 3국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경제공동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유 시장은 다음 달 1~2일 야마나시현에서 개최되는 제7회 한일지사회에 참석해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이준호 기자



우리금융그룹

'혹시 모른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혹시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가능성으로 불길에 뛰어든다

혹시 당장 출동할지 모르니까

불어나는 짜장면보다는 볶음밥을 시키고

혹시 오늘 출근이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늘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출근한다

그렇게 혹시 모른다의 가능성으로

소방관은 움직인다

우리금융그룹은

매일 다른 사람의 생명은 살리면서

자신의 생명은 마지막인 듯 살아가는

우리 히어로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 순직 및 상해를 입은 군인, 소방, 경찰 공무원 지원
- 전현직 군인과 군인 가족을 위해 트라우마 치유 지원사업

당신을 위하는 일이

우리 모두를 위하는 일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화재현장에 뛰어드는 소방관을
화염으로부터 지키는 방염 장갑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추신수 감독설에 SSG “소문일 뿐…손시현은 NC와 원만하게 정리”

김성용 단장, 추신수·김강민과 저녁 식사…“뭔가를 결정하는 자리 아니었다”

추신수(41)와 김강민(41)은 10월 31일 김성용 SSG 랜더스 단장과 만났다.

SSG가 김원형 전 감독을 경질한 날, 단장과 추신수가 만나 ‘추신수 감독설’이 더 힘을 얻는 듯했다.

하지만, 김성용 단장은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추신수 감독 선임은 우리 구단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추신수 감독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어제저녁 자리는 팀을 위해 혼신한 베테랑 두 명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두 선수가 생각하는 향후 계획에 관해 가볍게 대화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 단장은 “김원형 전 감독님과 작별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았다. 감독 계약 해지도 (10월) 30일과 31일에 결정했는데, 바로 감독을 선임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며 “추신수와 김강민, 두 선수의 현역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도 아니었다. 두 선수의 계약 여부도 구단 내부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추신수가 감독 후보인가”라는 질문에 김 단장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SSG 추신수(왼쪽)가 28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LG 트윈스와의 홈 경기에 1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1회말 투수의 초구에 원발을 맞은 뒤, 투수 쪽을 바라보고 있다.

김 단장은 “신임 감독 선임은 정말 지금이 초기 단계다. 구단이 후보군을 만들고, 최종 후보를 결정해 그룹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모기지) 신세계의 기조가 자율이다. (윗선 개입 등) 무분별하게 떠도는 소문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공식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손시현(43) 전 NC 다이노스 코치의 퓨처스(2군) 감독 선임은 확정됐다.

김성용 단장은 “손시현 전 코치를 영입하기로 했다. NC와 잘 마무리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임선남 NC 단장도 “손시현 전 코치가 다시 우리 구단에서 뛰어주길 바랐지만, 최근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손시현 SSG 퓨처스 감독 내정자는 두산 베어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지만, 2014년 NC로 이적했고 2019년 시즌 종

료 뒤 은퇴할 때까지 NC 유니폼을 입었다. 2020년 지도자 생활도 NC에서 시작했다. 그는 2021년 12월 미국프로야구 필라델피아 필리스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코치 연수를 시작했고, NC는 예정된 연수 기간 3년 중 일정 기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 단장은 “손시현 전 코치가 미국 연수를 마치고 우리 구단(NC)에 힘을 보태줄 것으로 생각하고 연수 비용 등을 지원했다. 하지만, 개인에게 온 좋은 기회를 막을 수는 없다”며 “우리 구단이 지원한 금액만 돌려받고, (NC로 돌아온다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코치들을 대거 내보낸 SSG는 새로운 코치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민재, 정상호(이상 둘데 자이언츠), 정경배(한화 이글스), 조웅천(두산 베어스) 코치가 이미 팀을 떠났다.

SSG는 1일 “1군 채병용 투수코치, 손지환 수비코치, 곽현희 트레이닝코치, 퓨처스팀 박주언 투수코치, 류재준 컨디셔닝 코치에게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며 “이진영 코치는 사임했다”고 코치진 추가 이탈 소식을 전했다. / 최준용 기자



김민재

손흥민·김민재, 축구통계 매체

‘10월의 팀’에 선정

한국 축구의 기둥 손흥민(토트넘)과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축구 통계 매체가 선정한 잉글랜드와 독일 프로축구 ‘10월 이달의 팀’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후스코어드닷컴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10월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11명의 라인업에 손흥민을 포함했다.

이 매체에 평점 7.68을 받은 손흥민은 맨체스터 시티의 ‘괴물 골잡이’ 엘링 홀란을 누르고 최전방 공격수에 배치됐다.

손흥민은 10월 정규리그 3경기에서 2골 1도움을 폭발, 토크넘(8승 2무)이

2023-2024시즌 리그 1위로 올라서는 데 일조했다. 벌써 이번 시즌에만 8골을 넣은 손흥민은 득점 선두 홀란(11골)을 3골 차로 뒤쫓고 있다.

브렌트퍼드의 브라이언 음베우모(7.93)와 에버턴의 드와이트 맥닐(7.78)이 좌우 수로 이름을 올렸다. / 광도현 기자

두산 또 우승? 새 리그 새 챔피언?…핸드볼 ‘H리그’ 11일 개막

총상금 3억·전문 중계 챌린지…확 달라진 핸드볼 통합리그 팡파르



새로 출범하는 핸드볼 통합 리그 H리그 개막을 앞두고 남자부 ‘우승 후보 0순위’ 두산을 향해 다른 팀들이 집중 견제에 나섰다. 1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신한 SOL페이 2023-2024 핸드볼 H리그 미디어데이가 열렸다.

H리그는 기존 ‘SK코리아리그’를 대체

한다. 코리아리그에 몸담았던 남자부 6개, 여자부 8개 팀이 그대로 H리그에서 경쟁 한다. 지난 시즌까지 코리아리그 8연패를 이룬 ‘절대 1강’ 두산이 H리그 남자부의 강력한 초대 챔피언 후보로 손꼽힌다.

하지만 다른 구단 사령탑은 이번만큼은 두산의 독주가 끝날 것이라며 목소리

를 높였다.

백원철 하남시청 감독은 “이제는 ‘어우 두’가 멈췄으면 좋겠다. 반전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팀이 한 계단씩 올라가고 두산은 두 계단 정도 내려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영신 상무 감독은 “이번 H리그에서는 어우두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인천도시공사의 전력이 보강됐다. 다른 팀도 두산을 견제하며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 이번 리그는 박진감이 넘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시즌 코리아리그 준우승팀 인천도시공사의 정강욱 감독은 “항상 1등인 팀은 없다”면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윤경신 두산 감독은 경쟁자들의 경제 성 발언을 여유롭게 받아넘겼다.

윤 감독은 “8연패의 챔피언 타이틀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H리그를 잘 준비해서 멋진 경기를 보여드리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여자부에서는 지난 시즌 코리아리그 2연속 통합우승을 이룬 삼척시청의 우승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제 청 삼척시청 감독은 “새 리그에서도 우승하고 싶다. 리그의 주인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여자부에도 삼척시청의 정상 등극을 막으려는 경쟁자가 많다.

강재원 부산시설공단 감독은 “리빌딩으로 젊은 팀을 만들었다. 패기 넘치는 플레이를 펼치고 외국인 선수를 잘 활용해 4강, 결승까지 갈 기회를 만들겠다”고 큰 소리쳤다.

/ 양희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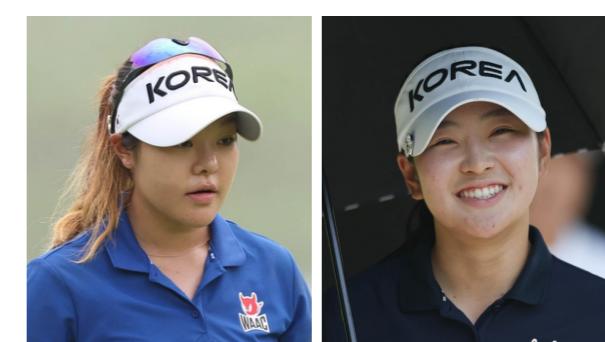
으로 입회했다.

1일 KLPGA에 따르면 임지유와 유현조는 지난달 30일 54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열린 정회원 선발전에서 각각 2위와 3위에 올라 10명에 게만 주어지는 정회원 자격을 획득했다.

임지유와 유현조는 이달 7일부터 열리는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예선 전에 출전할 수 있다.

/ 강문성 기자

AG 은메달 임지유·유현조, KLPGA 정회원 입회



임지유(좌), 유현조(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골프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딴 임지유와 유현조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정회원

갓생을 찾고 있다면 지금 바로 **준대있게**

**나는 농업·농촌에서
갓생굿집**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직업으로서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어른 위한 동화 '정신병동에도'…“많이 웃고 가끔은 울컥할 것”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마음 시린 사람들의 이야기…3일 공개

커튼이 없어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쏟아지는 정신건강의학과. 긴 밤을 겪고 있는 마음 시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사롭게 비춘 넷플릭스 새 시리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이하 '정신병동에도')가오는 3일 베일을 벗었다.

주연을 맡은 배우 박보영은 1일 서울 종로구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정신병동에도' 제작발표회에서 "저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은 캐릭터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박보영은 내과 근무 3년 차에 정신건강의학과로 전과하는 간호사 정다은을 연기한다. 지나친 공감 능력과 몰입이 끊임의 사건, 사고를 만들기도 하지만 다은의 따뜻한 마음과 친절은 환자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

박보영은 "다은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남에게 양보하는 인물"이라며 "그런 성격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하



는데, 저도 한때 다은과 같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성장해나가는 다은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저 역시 성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사 중심으로 흘러 가던 여느 메디컬 장르물과는 다르게 '정

신병동에도'는 간호사와 환자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

박보영은 "정신병동의 문턱이 낮아졌

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출연하게 됐다"며 "마음의 병이 생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드라마가 그런 부분을 더 쉽고 편안하게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간호사와 의사의 연기한 배우들은 실제 정신병동 의료진들에게 자문하고, 현장을 참관하는 등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박보영은 "병원에서 노트 들고 쓰아다니면서 업무를 익혔다"며 "제가 조금이라도 간호사처럼 보인다면, 그건 다 저를 가르쳐주신 간호사분들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정신건강의학과 수간호사 송효신을 연기한 이정은 역시 "실제 수간호사 선생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정신적 지주이자 마치 엄마 같은 든든한 존재를 연기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효신은 경력이 아주 오래된 수간호사지만, 신입 간호사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 위로도 받고, 위로도 주며 성장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배우 연우진이 엉뚱한 성격의 항문외과 의사 동고윤을, 장동윤이 밝은 모습 뒤 아무도 모르는 아픔을 가진 다은의 단짝 친구 송유찬을 연기했다.

/ 오정민 기자



MBC 금토드라마 '연인'

MBC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금토드라마 '연인'의 방송 회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드라마는 당초 20부작으로 예정됐다.

/ 김희진 기자

엠넷 '스우파' 시즌2 2.4%로 종영…베베 최종 우승



여성 댄서들의 치열한 춤 대결을 그린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 시즌2가 시청률 2%대로 막을 내렸다.

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방송된 엠넷 '스우파2' 최종회 시청률은 2.4%로 집계됐다. '스우파'

시즌1 최종회 시청률(2.5%)보다는 낮은 수치다.

전날 방송에서는 댄스 크루 원밀리언, 베베, 잭 리퍼블리, 마네퀸의 개성을 살린 화려한 경연 끝에 베베가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다.

베베의 리더 바다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서 너무 행복하다.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묵묵하게 잘 따라와 준 우리 멤버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끝까지 응원해주신 팬들 덕분에 (상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평생 보답하면서 춤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스우파2'는 글로벌 크루들을 섭외해 글로벌로 판을 넓히며 차별화를 꾀했다.

영미권 댄서들의 프로젝트 크루인 잭 리퍼블리와 일본 댄스 크루 츠바킬이 합류해 색다른 매력을 불어넣었다는 평을 받는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출연진이 창작한 안무를 따라 하는 댄스 챌린지, 댄서들의 퍼포먼스를 담은 영상 클립들이 인기를 끌었다.

냉철하고 분석력 있는 심사도 호평을 끌어냈다. 지난 시즌에 '프라우드먼' 크루의 리더로 참여했던 모니카가 심사를 맡았고, 세계적인 댄스 크루 킴자즈(KINJAZ)의 마이크송, 안무가 배운정 등이 스페셜 저지로 활약했다.

/ 서난영 기자



뽀로로 20주년 기념 '극장판 슈퍼스타 대모험' 12월 13일 개봉

어린이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뽀통령'으로 불린 뽀로로 캐릭터의 탄생 20주년을 맞아 애니메이션 '뽀로로 극장판 슈퍼스타 대모험'이 다음 달 13일 개봉한다. CJ CGV에 따르면 '뽀로로 극장판 슈퍼스타 대모험'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결성한 '뽀로로 밴드'가 우주에서 최고의 스타를 뽑는 오디션 '파랑돌 슈퍼스타 선발 대회'에 도전하면서 벌어지는 모험 이야기를 그린다. 크롱과 루피 등 귀여운 친구들이 뽀로로와 함께 우주선을 타고 오디션에 출전한다. 완벽한 실력을 자랑하는 인공지능(AI) 아이돌 아이원과 악당 빅벤 등 새로운 캐릭터들도 등장한다. 윤제완·김성민 감독이 연출했고, 상영 시간은 77분이다.

/ 박윤성 기자

이승기 배우자 이다인 임신…“가정에 새 생명 소식”



승기 씨 가정에 찾아온 귀한 생명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한다"며 "이승기 씨가 조심스러우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내년 태어날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기와 이다인은 공개 연애 끝에 올해 4월 결혼했다.

배우 겸 미리의 딸이자 이유비의 동생인 이다인은 현재 병영 중인 MBC 드라마 '연인'에 경은애 역할로 출연하고 있다.

/ 최형민 기자

세계연합신문

www.wunion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조영광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희진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민국 경기청년들에게 고하노니 청년독립은 금융자립으로부터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하나의 계좌로 저축과 대출, 우대금리까지

지원대상 도내 거주 25~34세 청년 6만명(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 제외)

신청기간 '23. 10.20.(금) ~ 10.29.(일) 9시~20시 (출생일자별 해당일 10부제 신청)

지원사항 마이너스 대출(한도거래), 수시입출식 예금

대출한도 최초 3백만원, 1년 후 신용점수 유지 및 상승 시 5백만원

신청방법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선착순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문의처 031-120 경기도콜센터



현대자동차 2023 EV 세일페스타

전기차는 올해가 타이밍



※ EV 세일페스타 10월 퀴즈 이벤트 바로가기

현대자동차 2023 EV 세일페스타

기간 2023년 10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보조금 소진 시 조기 종료)

대상 차종 및 혜택 아이오닉 5 / 아이오닉 6 최대 560만 원,

코나 일렉트릭 최대 320만 원 상당의 혜택 제공(추가 구매보조금 포함 시)

